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국제학교 설립 길 열렸다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인구 유입·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2030년까지 3만 여명 자족도시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길이 열렸다. 해남군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설립이 가능했던 외국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초·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초·중등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유입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기업도시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에서는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을 투입해 인구 3만 6600명의 자족도시가 건설된다.

50만평 규모의 RE100 산업단지과 태양광 집적화단지, 34만평의 화원산단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파크, 탄소중립 클러스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각종 민관 투자유치가 이어져 활성화에 본격적인 나래를 펴고 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되는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인근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에서부터 1만 여명이 넘는 신규 고용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인 산이정원은 오는 4월 개관하고 추가로 1만 4600 가구의 주택과 고급 아파트 등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기업도시내 종합병원 및 복합의료타운 건립 투자협약도 성사된 가운데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족형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기업도시 정주환경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정주 기반시설인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명실상부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발전 특구 지정 등 정부 공모와도 연계해 국제학교 유치와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설맞이 물가 안정 가격표시제 실패 점검

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격표시제 실패를 점검하고 있다. 목포시는 물가모니터 요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월 8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지역은 북항권, 유달산권, 삼학도, 하당권 등 설 연휴기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내 소매점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대비 물가상승 우려가 있는 과일·생선 등 명절 필수품목, 쌀·두부·우유 등 생필품, 완구·악기·운동용품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가급적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판매업자에게 물품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면서 "점검기간 중 지역상인 및 시민들과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낙월면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연중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영광군이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상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비) 운임지원 사업은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업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들에게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영광 낙월면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 배상비를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상비를 지원받으려는 섬 주민은 낙월면 사무소 또는 해양수산과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상비 전액을 지원하며 증빙자료에 추가 배상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배송주소·송장번호 포함)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매월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교통, 생필품지원, 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섬 주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군은 지난 24일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분산에너지 추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분산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박차

특화지역 유치 추진단 발족

영암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분산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은 오는 6월 발효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해 전략을 세우고, 지역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수요기업 유치 등 조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추진 전략 포럼'을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수도권 중심으로 편성된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역으로 분산해 수요지 가까이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포럼은 2부로 나눠 '분산에너지 영암군 추진 전략'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계승모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의 정책 설명에 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영암군의 전략에 대해 이순형 동신대 교수가 발표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분산에너지 전망과 미

과과제', '분산에너지 시대 영암군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각 분야 에너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F1자동차경주장, 대불국가산단 등을 보유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영암군만의 차별화된 분산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영암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추진단'도 발족했다. 추진단에는 영암군, 영암군의회, 이장단협의회 등 지역 기관·단체와 영암문화관광재단 등 지역 내 유관기관, 목포대, 사단법인 1.5℃포럼 등 연구기관,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산업단지공단, 현대상호중공업 등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에 특화된 영암의 준비에 지역사회의 역량을 집중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를 지역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최호성(오른쪽 두번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장이 사업설명회에서 공단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올 사업 설명회

장애인고용 지원제도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가 전남지역 장애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협회장 등 12개소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고용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장애계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는 장애인을 신

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주요사업을 안내했으며 공단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호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장은 "전남지역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와 고용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장애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아리랑물, 320개 품목 설맞이 20% 할인

회원가입 포인트 적립 행사도

진도군이 직영 온라인 쇼핑몰 진도아리랑물에서 설맞이 할인 행사를 한다. 판매되는 전품목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회원가입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2000포인트 적립 행사도 함께한다. 진도아리랑물은 진도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로 60여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쌀, 울금, 구기자 등의 농산물, 활전복, 곱창김, 돌미역 등의 수산물, 한우, 홍주 등 320여개 진도의 우수한 청정 농수산물을 판매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 농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맛 좋고 영양 많은 진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